

안서가 아닌 말레이시아를 위한 선구자적인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거나, 지역 및 외국 회사들과 융합하여 각각의 응용분야에 하나의 단일 솔루션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.

한편 이번 제안서는 MDC의 특별전담반이 작성한 것이다. 이 전담반은 각 정부 부처와 민간의 지역사업자 및 해외사업자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. 따라서 일부 회사들은 전담반에 들어간 사업자들이 사업 승인 입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. 또한 말레이시아회사들도 외국사업자들이 너무 많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전담반 정보에 미리 접근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.

이번 해에만도 15개 기업이 MSC계획에 4,700만 링깃트를 투자할 계획이다. MSC는 현재 약 600만 링깃트의 이윤을 내고 있으나 2001년까지 1억 1,300만 링깃트로 증대할 것이다. 해당기업의 총 투입인력도 사업 초 5,325명에서 운용개시 5년까지는 14,39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(『Asia-Pacific Telecoms Analyst』, 1997. 8. 4)

베트남, 인터넷 서비스 본격 도입

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국내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잠정적 규제(Temporary Regulation)를 발표하여 인터넷 도입을 정식 승인하였다. 이후 이 규칙에 근거하여 5월 8일 '국가인터넷규제위원회'를 정식 발족하고 과학기술환경장관을 동 위원회의 의장으로, 베트남우전총국(DGPT) 국장을 부의장으로 임명하였다.

동 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의 본격적인 도입을 인정하고 인터넷망과 서비스, 콘텐츠 등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시작하였다. 인터넷 접속사업자 면허 부여와 인터넷 게이트웨이 운용 및 인터넷 백본망 구축 등은 베트남 우전공사(VNPT: Vietnam National Posts and Telecommunications)가 주관하며, 콘텐츠 규제는 문화정보부(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)가 주관한다.

정부의 규제내용은 인터넷망 접속이 베트남 국내 서버 및 인가된 국제 게이트웨

이를 경유해야 하며, 인터넷상의 정보가 출판법과 공중법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베트남에서 최초로 1994년부터 E-mail 및 넷뉴스(Net news)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학술계 ISP인 베트남정보기술연구소의 Netnam은 온라인에 의한 인터넷서비스 도입을 위해 베트남우전총국과 VDC(Vietnam Data Communication Co.)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위한 교섭을 한 적이 있었다. 그러나 정부가 인터넷의 유해정보 범람을 우려함으로써 이 교섭은 1995년 7월에 중단되었다. 이번 조치는 약 2년전까지 인터넷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베트남 정부가 인터넷 도입을 본격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정보사회로의 일보를 내디뎠다는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. 현재 베트남에는 10만대의 PC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며, 대부분은 외국 기업 사무실에 한정되어 있다. (『KDD總研R&A』, 1997. 7월호)